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만에 단죄

“17세 소녀 꿈도 못피고 죽었다” 광주지법 무기징역 선고 미제로 남을 뺀 사건 해결... ‘태완이법’ 이후 첫 유죄 판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혀졌다. 범인은 피해자의 몸 속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이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간한 뒤 죽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7세 소녀는 꿈도 피지 못하고 죽었다”며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7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 재판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4일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람

태완이법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주내용으로 한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49일간 투병하다 사망한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기 예상되자 폐지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태완 군 사건은 공소시효(당시 15년)가 만료돼 ‘태완이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과 합동팀을 꾸려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당시 A양의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의학자 의견을 근거로 김씨를 범인으로 봤다. 또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도 확보했다. 결국,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가 A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지휘한 구본선 광주지검 차장김씨는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죄없이 희생된 망인의 한을 풀게 돼 다행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1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진실이 16년만에 밝혀졌다.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이 법정을 나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영전구 수은 중독 현장 관리자 3명 실형

대표는 집유... 회사 벌금 2억

남영전구 집단 수은 중독 사태(광주일보 2015년 10월13일자 6면) 현장 관리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남영전구 측은 작업에 들어간지 2~3일만에 근로자들이 발진과 구역질 등을 앓고 쓰러지면서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과 함께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의 경우 철저 작업 과정에서 수은이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남영전구 신모(58) 총괄책임자와 박모(48) 관리감독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 공사를 담당 한 협력업체 장모(55) 현장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남영전구 모기업의 안전기술담당자인 장모(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남영전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은 유출 위험이 큰 작업 환경에 근로자를 투입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등 피해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발진 등의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계속 작업에 투입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이 근로자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시켜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35개월 기다림 끝 오늘 광주서 첫 공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 법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 첫 공판이 무려 35개월의 기다림 끝에 광주에서 시작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아시아태평양전쟁 말 일 본으로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장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 원고의 주소가 누락됐다. 안내문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한 미쓰비시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35개월 만

에 첫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원고인 고령의 할머니들은 건강이 악화, 요양병원에서 투병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소송은 김재림(여·87), 양영수(여·88), 심선애(여·87) 할머니와 고 오길에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81) 씨가 원고로 나서 일본기업 미쓰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민모임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차 소송은 1, 2심 승소했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3차 소송은 오는 1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범죄 입증 어떻게 했다

“드들강에서 살해된 여고생은 성관계 뒤 곧바로 숨졌다.”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 감정 증언이 ‘16년간 채워졌던 자물통’의 열쇠가 됐다.

이 법의학자는 “성폭행 뒤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숨졌다. 즉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이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다.

근거로 A양은 당시 생리 중이었고, A양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이 피해자의 생리혈과 가해자의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었다. 그는 성관계를 한 지 2~3분

“성관계 뒤 사망” 법의학자 증언 DNA 밝혀

알리바이 위한 당일 촬영 사진 결정적 증거

내 목이 졸려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기 때문에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성관계와 살인이 짧은 시간에 이뤄져 A양이 숨지기 전 성관계를 한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의미다. 결국 DNA를 통해 성폭행범이 김씨인만큼 김씨가 명백한 살인범이라는 결론이다.

또 다른 결정적 증거는 김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이었다.

김씨는 사건 당일인 2001년 2월4일 감인 외가에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7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진은 꼭 챙겼다. 알리바이를 만들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진으로 김씨가 진범임을 확신하게 됐다. 김씨는 역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외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서 조카와 접견할 때는 사진이 자신의 무고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진이 무고를 뒷받침할 희심의 카드로 봤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범행이 틀렸던 셈이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 취해 이웃집 현관문 잠금장치 부수며 심야 난동



○심야에 아파트 이웃집 현관에서 고함을 지르고 삼으로 현관문 잠금장치까지 박살낸 50대 남성이 최종 상심.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으로 지역 4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4월 바깥세상에 나온 A(57)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 옆집 김모(30)씨의 집 현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데 이어 삼과 도끼로

10만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를 수차례 내리쳤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이웃에 행패를 부리는 인물이었으나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A씨를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 앞에 모아둔 재활용품을 옆집에서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해 삼을 들었다”며 범행을 시인.

김한영기자 kh@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민음에 있는 대학·민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소로 36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형일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2017. 2. 8(수) 오후 3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